

아웅산 수처 광주인권상·명예시민 취소

5·18기념재단 “로hing야족 인권유린, 인권상 정신에 위배”

5·18기념재단이 지난 2004년 아웅산 수처 미얀마 국가자문역에게 수여한 광주인권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도 2013년 수여한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처가 소수부족인 로hing야족 학살을 방관하는 태도를 일관하면서 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 취소를 요구(광주일보 2017년 9월 12일자 7면)하는 여론이 이어졌다.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인 5·18기념재단은 18일 5·18기념문화센터 내 사랑방에서 ‘아웅산 수처 광주인권상 수상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아웅산 수처에게 수여했던 광주인권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인권상 취소는 첫 사례다.

이철우 5·18재단 이사장은 “로hing야족에 대한 인권유린과 비인도적인 방관은 민주·인권의 가치를 선명히 하고 있는 광주인권상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아웅산 수처와 버마 외무부 및 국무부장관, 미얀마 대법원장, 미얀마 한국대사 등

에게도 항의 서신을 보내 박해 중단을 촉구 해왔으나 아웅산 수처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아웅산 수처의 광주 인권상 철회를 결정했다”며 “이는 아웅산 수처에 대한 재단의 항의성 의지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일보의 지적에도 철회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수차례 보냈으며 답변을 기다려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박탈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규정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을 변경하고 이사회 결정을 거치는 과정 때문에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아웅산 수처와 미얀마 대사관, 미얀마 인권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철회 결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확한 철회시점은 결정하지 않았다.

아웅산 수처의 인권상이 철회되면 재단 홈페이지에서 얼굴사진과 이름이 삭제되



아웅산 수처.

고, 5·18기념문화센터 2층에 설치된 얼굴 동판이 철거된다. 5·18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국제행사·워크숍에도 초청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역대 광주인권상 수상자는 모두 23명으로, 철회는 아웅산 수처가 처음이다. 다만 2007년 공동수상자 중 한명인 인도 출신 레닌 라구와니쉬는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받고 있어 현재

수상자 자격 유보 상태다.

5·18재단의 철회방침에 따라 광주시도 지난 2013년 아웅산 수처에게 수여한 광주명예시민증 취소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광주시는 그동안 잇단 취소 요구에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난 3월 항의 서한 전달만 했을 뿐 미얀마와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취소 절차는 밟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2월에 이어 8월에 진행된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취소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받고 나서야 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취소로 방침이 결정되면 내년 2월 예정된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966년 도입된 광주명예시민증은 광주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타 지역 인사나 외국인에게 수여되고 있다. 현재까지 114명이 명예시민증을 받았고 취소된 사례는 없다. 관련 조례에는 광주명예시민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시의회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나는 김장김치 담그기 18일 광주 북구 흥흥어린이집 원생들과 북구청 신규공무원들이 어린이집 '나도 요리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김장김치를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학교 비정규직 노조 임금협상 타결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임금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8일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20일 임금협상 체결식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집단교섭을 통해 근속수당을 기존 기본 3만원에서

2500원 인상(최대 65만원까지 지급)하고 현재 지역별로 다른 상여금을 연간 90만원(광주 70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합의 이행에 광주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7억~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또 직종교섭을 통해 정액급 식비 수당을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직종 기본급 체계 개선 등에 합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은 급식 조리원, 교무 행정사, 영양사, 교무 실무사 등 51개 직종 약 4000명에게 적용된다. 노조 측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지난 10일부터는 매트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는 노숙농성을 벌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가족 사칭 신종피싱 기승

올 피해액 작년 2배 3340억

정부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최근에는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해당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3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도 4만75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전화·문자메시지는 물론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앱 등 신종 기법을 활용한 피싱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정부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한 피싱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메신저로 소액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다.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부탁하기 때문에 50~60대의 피해가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달뜨기 14:54
해질 17:23 달짐 03:23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 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광주	구름많음	0/14	보성	흐림	-3/13
목포	흐림	5/13	순천	구름많음	0/15
여수	구름많음	4/13	영광	구름많음	2/13
나주	구름많음	-2/14	진도	흐림	5/13
완도	흐림	4/14	전주	구름많음	3/12
구례	구름많음	-3/13	군산	구름많음	4/11
강진	흐림	-2/14	남원	구름많음	-2/11
해남	흐림	-1/14	흑산도	흐림	9/14
장성	구름많음	-2/1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5	남동~남	0.5~1.0
	먼바다	남서~서	1.0~1.5	남~남서	1.0~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먼바다(동)	서~북서	1.0~1.5	서~북서	1.0~1.5
남해	먼바다(서)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19	16:57	11:18	23:24
여수	00:05	12:30	06:33	18:42

◇주간 날씨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	☁	☁	☀	☁	☁	☁
6/13	5/14	5/10	2/8	-2/6	-2/6	-3/5

광주 북구의회 일회용품 사용 금지 선언

광주 북구의회가 18일 환경보호를 위해 의회사무국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의회는 종이컵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의회사무국 전체와 각 의원 사무실 내 종이컵을 없애고, 각종 회의에서도 다 회용 컵과 식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각자 개인이 준비한 머그잔, 텀블러 등을 사용

함으로써 일회용품 줄이기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고정래 광주 북구의회 의장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 등을 비롯한 일회용품은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민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북구의회가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간격 넓어 휠체어 탑승 위험

광주를 비롯한 지하철의 역사 내 승강장과 객실 간격이 넓어 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광주 4곳 등 전국 지하철 역사 3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35개 역사 가운데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사이의 간격 기준(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30곳(85.7%)에 달했다. 1.5cm인 눈이 기준을 초과한 곳도 10곳이나 됐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34개 역 가운데 26개 역에서는 진행 방향과 반대로 진입했을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15곳은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방향으로 진입했을 때 사고 위험이 높았다.

또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역사 11곳의 경우, 역무원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 거리가 61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어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또 3곳은 호출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www.kepco.co.kr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Clean Energy, Smart KEPSCO-